

통사적 시각에서 본 스웨덴어 어순*

박 현 숙**

스웨덴어 어순은 문장 내 통사적인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어순, 특히 주어와 동사의 순서가 문장에서 매우 중요한 통사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다른 언어와 비교하여 어순이 상당히 고정되어 있다.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많은 스웨덴어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순의 규칙과 기능을 고찰하는 것으로 특히 어순의 통사적 기능을 조명한다.

기본 어순이 주어(S)-(서술)동사(V)-목적어(O)인 스웨덴어는 어순으로 문장성분 주어와 목적어를 구별한다. 어순은 문장성분뿐만 아니라 문장 유형을 구별하는 기능을 한다. 평서문과 의문사 의문문의 경우 동사는 항상 두 번째에 위치하는 반면 명령문과 예/아니오 의문문에선 동사가 문장 맨 앞에 온다. 스웨덴어 어순은 문장의 종속관계, 주절/종속절을 구별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어가 아닌 다른 문장성분으로 시작될 경우 주절은 동사(V)-주어(S) 순의 도치문이 되지만 종속절은 항상 주어(S)-동사(V) 순의 정치문의 형태를 지닌다. 또한 주절에서는 문장부사어가 동사 뒤에 위치하지만 종속절에서는 동사 앞에 위치한다. 스웨

* 이 연구는 2019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칸디나비아어과 교수

덴어 어순은 의미가 없는 문장성분이라도 반드시 문장에 존재해야 한다는 소위 자리지킴이 원칙과 깊은 관련이 있다. 순전히 문장의 성립을 위해 문장에서 자리를 지키는 기능을 하는 주요 문장성분으로는 주어와 동사가 있다.

주제어: 스웨덴어 어순, 통사적 기능, 문장성분, 문장유형, 주절/종속절, 자리지킴이 원칙

1. 서론

영어와 함께 게르만어에 속하는 스웨덴어의 어순은 영어보다도 훨씬 고정적이다(Holmes & Hinchliffe, 2008; Viberg, Ballardini & Stjärnlöf, 1984). 어순이 문장에서 매우 중요한 통사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어순의 변경이 제한된다. 예를 들면, 주어와 동사의 순서로 문장성분인 주어, 목적어 등을 구별하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의 문장 내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Park, 1994, 2010). 주어 없는 문장이 흔한 한국어와 비교할 때 스웨덴어에서 주어와 동사는 필수 문장성분으로 주어와 동사의 문장순서로 문장유형(예, 평서문, 의문문)이 좌우된다.

스웨덴어 어순은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이 되는 문법현상 중의 하나이지만, 비교적 높은 학습단계에 도달한 후에도 한국어가 모국어인 스웨덴어 학습자들이 흔히 범하는 중요한 오류의 원인이 되고 있다(Park, 2010). 그럼에도 유감스럽게도 현재 한국에서 교육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스웨덴어 문법교재는 품사론에 비중이 치우치고 있는 반면 어순을 다루는 문장론은 상당히 빈약하다(박현숙, 2015, 2016; 변광수, 2007). 또한 실제 대학 문법 강의에서도 품사론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스웨덴어 문장론 중 국내 스웨덴어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요인인 어순의 규칙과 기능을 자세하게 고찰하는 것

으로 어순 중에서도 어순의 통사적 기능(satgrammatiska aspekter)을 조명한다. 스웨덴어 어순과 관련한 국내 연구는 전무한 상태로 스웨덴어의 구조적 특징을 개괄적으로 다룬 연구(변광수, 1980)와 한국 외국어대 스칸디나비아어과 학생들의 스웨덴어 오류문장을 분석한 연구(변광수, 2002; Park, 2010)가 거의 유일하며, 이후 후속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모국어에 상관 없이 제2언어로 또는 외국어로 스웨덴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 매우 어렵기로 알려져 있는 스웨덴어 어순규칙과 기능을 논의하고 더 나아가 스웨덴어 강의에 이를 실제로 반영할 수 있게 하여 한국 학습자들의 성공적인 어순규칙 활용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또 다른 목적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본 논문의 배경을, 제2장은 어순의 통사적 기능과 담화적 기능을 스웨덴어와 한국어를 비교하여 간략하게 다룬다. 제3장에서는 스웨덴어 어순의 주요 기능인 통사적 기능을 문장 성분, 문장유형, 문장 내 주종관계인 주절/종속절에 따라 자세하게 논의한다. 제4장은 스웨덴어의 어순과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는 자리킴이 원칙을 다룬다. 제5장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요약한다.

2. 어순의 기능

어순은 크게 두 가지 기능으로 구분된다. 문장 내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어순이 사용되는 통사적 기능(satgrammatiska funktioner)과 말하는 사람과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어순이 사용되는 담화적 기능(textgrammatiska funktioner)이 바로 그것이다. 영어와 마찬가지로 스웨덴어의 어순은 예를 들면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가 무엇인지 결정하기 때문에 통사적 기능을 한다(Ekerot, 2011; Hammarberg & Viberg, 1979). 어순으로 문장의 주제(tema)와 평언(rema)을 표시하는 한국어의 어순은 통사적 기능을 한다기보다 주로 담화적 기능을 한다(Park, 1994: 42).¹⁾

1) 주제는 보통 문장 앞 부분에 위치하여 문장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지를 알려주는 반

2.1 통사적 기능

문장 내에서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어순이 사용될 때 어순이 통사적 기능을 한다고 한다. 스웨덴어의 기본 어순은 주어(S)-(서술)동사(V)-목적어(O)로 동사 앞에 위치한 어구는 주어이며 동사 뒤에 위치한 어구는 목적어이다.²⁾

예시문 (1)의 첫 번째 문장에서는 Håkan이 주어이며 barn이 목적어인 반면 두 번째 문장에서는 barn이 주어이며 Håkan이 목적어가 된다. 스웨덴어의 어순은 주어와 목적어 등 문장성분을 구별하는 중요한 통사적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언어와 비교할 때 어순의 변동이 비교적 제한적이다.

(1)	<u>Håkan</u>	<u>gillar</u>	<u>barn.</u>	Håkan이 아이들을 좋아한다.
	S	V	O	
	<u>Barn</u>	<u>gillar</u>	<u>Håkan.</u>	아이들이 Håkan을 좋아한다.
	S	V	O	

스웨덴어의 어순은 문장성분뿐만 아니라 문장유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사가 문장 두 번째 자리에 오는 예시문 (2)의 첫 번째 문장은 평서문이며 동사가 문장 맨 처음에 위치하는 두 번째 문장은 예/아니오 의문문이다.³⁾

(2)	<u>Anna</u>	<u>kommer</u>	idag.	Anna가 오늘 온다.	(평서문)
	S	V			
	<u>Kommer</u>	<u>Anna</u>	idag?	Anna가 오늘 오니?	(예/아니오 의문문)
	V	S			

먼 평언은 주로 문장 뒷부분에 오며 주제에 관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지를 알려준다.

- 일반적으로 품사명인 동사가 문장성분인 서술동사보다 더 자주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사가 품사는 물론 문장성분을 지칭한다.
- 의문문은 의문사 의문문과 예/아니오 의문문으로 나뉜다(3.2 문장유형 참조).

스웨덴어 어순은 주절과 종속절을 구별할 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문문으로 된) 주절의 경우 주어는 동사 뒤에 위치하지만 종속절에선 동사 앞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예시문 (3)의 첫 번째 문장은 의문사 의문문의 형태로 된 주절이다. 의문사 의문문에서 동사는 평서문과 마찬가지로 문장의 두 번째 자리에 오며 주어는 동사 다음에 위치한다. 예시문 (3)의 두 번째 문장에서 var Hugo bor는 주절 Diana undrar 에 속한 종속절로 주어는 동사 앞에 온다.

(3) Var	<u>bor</u>	<u>Hugo</u> ?	Hugo가 어디에 사니?(의문사 의문문: 주절)	
어디에	V	S		
<u>Diana</u>	<u>undrar</u>	{var	<u>Hugo</u>	<u>bor</u> }. Diana는 Hugo가 어디에 사는 지 궁금하다.(종속절)
S	V	어디에	S	V

상기에서 보듯이 스웨덴어는 어순이 중요한 통사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어순의 변동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2 담화적 기능

문장의 이미 알려진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구별하는데 어순이 사용될 때 어순이 담화적 기능을 한다고 하며 한국어의 어순이 대표적인 예이다. 언어의 담화적 기능은 다시 주제 기능(*tematisk funktion*)과 강조 기능(*fokuserande funktion*)으로 나뉠 수 있다(Ekerot, 2011: 70).

어순의 주제기능은 문장구조가 ‘주제-평언 원칙(*teme-remapricipen*)’으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Hultman, 2003). 다시 말하면, 문장에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즉 구정보가 무엇인지, 새로운 정보가 무엇인지를 표시하기 위해 어순이 사용될 때 어순이 주제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구정보(=주제)는 문장 도입부에 위치하며 중요한 신 정보(=평언)는 문장 뒤에 온다(Park, 1994: 18).

(4) $\frac{\text{Polisen}}{S} \quad \frac{\text{grep}}{V} \quad \frac{\text{tjuven.}}{O}$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주제-평언 원칙을 적용하자면, 예시문 (4)는 경찰(=주제)이 누군가(=평언)를 잡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예시문 (4)를 도둑(=주제)을 누군가(=평언)가 잡았는지를 알려주는 구조로 된 문장으로 만들면 스웨덴어는 예시문 (5)와 같은 수동형 구문이 된다.

(5) $\frac{\text{Tjuven}}{S} \quad \frac{\text{greps}}{V} \quad \frac{\text{av polisen.}}{AA}$ 도둑이 경찰에 의해 잡혔다.

예시문 (4)의 목적어인 *tjuven* '도둑'을 주제로 주어 자리에 놓고, 주어이었던 *polisen* '경찰'을 행위자 어구인 *av polisen* '경찰에 의해'로 표시하면 주제-평언의 구조가 된다.

어순은 문장의 구정보와 신정보를 표시하는 주제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문장의 한 특정 어구를 신정보로 표시하여 강조하는 강조 기능도 한다. 문장의 나머지 성분은 모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으로 주제가 된다. 스웨덴어에서는 문장의 신정보인 평언을 강조하거나 부각시킬 때 예시문 (6)과 같은 특별구문인 강조구문(*emfatisk omskrivning/utbrytning*)이 사용된다.⁴⁾

(6) Det är Hannah som studerar franska på tisdag.
화요일에 프랑스어를 공부하는 사람은 Hannah 이다.

요약하자면, 스웨덴어 어순의 주요 기능은 통사적 기능으로 주제-평언 구조를 표시하는 어순의 담화적 기능은 스웨덴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4) 영어의 분열문 'It is Hannah that studies French on Tuesday'와 유사한 구문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어구(Hannah)를 *det är/var X som* _____ 구문의 X 자리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주제)을 *som* 절 다음으로 이동시켜 강조구문을 만든다(Viberg, Ballardini & Stjärnlöf, 1984; Wijk-Andersson, 2008).

담화적 기능을 표현하기 위해 수동형 문장, 강조구문 등과 같은 특별 구문이 사용되기도 한다(Ekerot, 2011; Josefsson, 2009).

3. 스웨덴어 어순의 통사적 기능

스웨덴어 어순은 통사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어순이 자유롭게 바뀔 수 없다. 스웨덴어 어순의 주요 통사적인 기능은 문장성분, 문장유형, 문장의 종속관계, 주절/종속절을 구별하는 기능이다.

3.1 문장성분

스웨덴어 어순은 문장성분, 특히 주어와 목적어를 구별하는데 사용된다. 예시문 (7)의 두 문장에서, *jägare*와 *björn*은 모두 명사이나 문장성분이 각각 다르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jägaren*이 주어이고 *björnen*이 목적어인 반면, 두 번째 문장에서는 *björnen*이 주어이며 *jägaren*이 목적어이다. 스웨덴어의 기본 어순은 주어(S)-(서술)동사(V)-목적어(O) 순으로 동사 앞에 위치한 어구는 주어로 동사 뒤에 위치한 어구는 목적어로 간주된다.

(7) <u>Jägaren</u>	<u>har dödat</u>	<u>björnen.</u>	사냥꾼이 곰을 죽였다.
S	V	O	
<u>Björnen</u>	<u>har dödat</u>	<u>jägaren.</u>	곰이 사냥꾼을 죽였다.
S	V	O	

3.2 문장유형

스웨덴어 문장은 크게 평서문, 의문사 의문문, 예/아니오 의문문 그리고 명령문으로 구분이 된다. 스웨덴어 어순은 문장유형을 구별하는 기능을 하며 문장유형의 차이는 문장순서도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3.2.1 주절순서도

문장순서도는 주절순서도와 종속절순서도로 나뉜다(3.3.1 종속절순서도 참조).

<표 1> 주절순서도⁵⁾

도입부 (Förfält)		중앙부 (Mittfält)			종결부 (Slutfält)		
문두어 (X)	정동사 (FV)	(주어) (S)	문장부사어 (SA)	부정동사 (IV)	불변화사 (Part/Prep/ Refl)	목적어/보어 (O/P)	기타 부사어 (ÖA)
Hannah	har		faktiskt	läst		franska	hemma idag.

주절순서도는 도입부, 중앙부와 종결부로 구성된다. 도입부에는 문장을

5) 순서도 설명:

문두어 (Fundament, X)	문장을 시작하는 어구이다.
정동사 (FV, V1)	정동사는 주절에 나오는 첫 번째 (서술)동사로 동작의 행위가 현재인지 과거인지를 나타내준다. 예) kan, visar, flyttade
(주어)(S)	문장이 주어로 시작될 경우 이 자리는 비워 둔다.
문장부사어 (SA)	절/문장 전체를 수식, 한정하는 부사이다. 예) alltid, gärna, inte, aldrig
부정동사 (IV, V2)	동사의 기본형 (infinitiv)이나 완료형 형태의 동사이다. 예) tala, varit
불변화사 (Part/Prep/Refl)	구절동사에 포함된 불변화사 (tycka om), 전치사 (titta på), 재귀목적어 (ha på sig) 등이 불변화사 자리에 온다.
목적어/보어 (O/P)	동사의 동작대상이 되는 목적어와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보어이다. 예) han läser en bok. Eva är trevlig.
기타 부사어 (ÖA)	방법부사어, 장소부사어, 시간부사어 등이 기타 부사어에 속한다.
방법부사어 (SÅA)	행위나 사건이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일어나는 지에 관해 표시하는 어구이다. 예) sitter ensam, kommer sist
장소부사어 (RA)	장소를 표시하는 어구이다. 예) hemma, i Korea
시간부사어 (TA)	시간을 표시하는 어구이다. 예) nu, i dag

시작하는 문두어가 온다. 중앙부는 정동사, (주어)와 문장부사어로 구성되며 종결부는 부정동사, 불변화사, 목적어/보어, 기타 부사어로 구성된다.⁶⁾ 중앙부의 정동사-(주어)-문장부사어의 순서가 가장 주절순서도에서 가장 중요하다.⁷⁾ 문장에 존재하는 문장성분만 순서도에 채워지며 나머지 부분은 빈 칸으로 남게 된다. 문장유형에 관계없이 주어와 동사 뒤 어순이 기본적으로 모두 동일하다.

3.2.1.1 평서문

평서문은 화자가 무엇인가를 주장하거나 진술할 때 사용되는 문장의 형태로 마침표로 끝난다. 평서문은 주어로 시작될 수 있지만 주어가 아닌 다른 문장성분으로도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동사는 항상 문장 두 번째 자리에 위치한다(V-2 regel).

<표 2> 평서문 순서도

도입부(Förfält)	중앙부(Mittfält)		종결부(Slutfält)				
문두어 (X)	정동사 (FV)	(주어) (S)	문장-부사어 (SA)	부정동사 (IV)	불변화사 (Part/Prep/ Refl)	목적어/보어 (O/P)	기타 부사어 (ÖA)
(8) Jonas	bor		inte				i Korea nu.
Jonas는 지금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다.							
(9) Tyvär	kan	jag	inte	köpa		min dotter en ny dator	ännu.
안타깝게도 나는 아직 딸에게 새 컴퓨터를 사 줄 수가 없다.							
(10) Eftersom det	har	hon			på sig	en tjock kappa.	
är kallt idag							
오늘 춥기 때문에 그녀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다.							

- 6) 문법책에 따라 순서도의 구성과 명칭이 다를 수 있다. 본 논문의 순서도는 Bolander(2012)과 Hultman(2003)에 기초한다.
- 7) 일반적으로 정동사라는 용어 대신 동사라는 용어가 더 빈번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본 교재에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사가 정동사의 동의어로 사용된다. 따라서 동사는 품사인 ‘동사’, 문장성분인 ‘(서술)동사’, ‘정동사’를 지칭할 때 모두 사용되고 있음에 주의한다.

순서도를 보면 평서문이 다양한 문장성분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시문 (8)은 주어 *Jonas*로, 예시문 (9)은 문장부사어 *tyvärr*로, 예시문 (10)에서는 (상황)부사어인 종속절 *eftersom det är kallt idag*으로 문장이 시작된다. 예시문의 문두어에 상관없이 순서도의 두 번째 자리에는 항상 동사가 존재한다. 문장이 주어로 시작되지 않는 예시문 (9)와 (10)은 주어가 동사 뒤인 3번째 자리에 오게 되어 도치문이 된다.⁸⁾ 예시문 (8)과 (9)에서 문장부사어 *inte* 가 동사(와 주어) 뒤에 위치하는 점에 유의한다.

3.2.1.2 의문문

의문문은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대답을 요하는 문장으로 물음표로 끝난다. 의문문에는 의문사 의문문과 예/아니오 의문문이 있다.

3.2.1.2.1 의문사 의문문

의문사로 문장이 시작되며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으로 동사는 의문사 뒤, 즉 문장 두 번째 자리에 위치한다. 주어는 동사 뒤에 온다.

<표 3> 의문사 의문문 순서도

도입부(Förfält)	중앙부(Mittfält)		종결부(Slutfält)				
문두어 (X)	정동사 (FV)	(주어) (S)	문장 부사어 (SA)	부정동사 (IV)	불변화사 (Part/Prep/ Refl)	목적어/ 보어 (O/P)	기타 부사어 (ÖA)
(11) Vad	gör	du					hemma nu?
	지금 집에서 뭐 하나?						
(12) Vilka	kan			komma			till middag nästa lördag?
	다음 주 토요일 저녁에 누가 올 수 있나?						

예시문 (11)과 (12)는 의문사 *vad*와 *vilka*로 시작되는 의문사 의문문이다.

8) 문장성분은 개별 단어가 아닌 구나 종속절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시문 (10)에서 종속절 *eftersom det är kallt idag*이 한 개의 부사어로 간주된다.

예시문 모두 문두어 뒤에 동사가 오며 그 다음에는 (주어), 문장부사어, 부정 동사 순으로 평서문의 순서도와 의문사 의문문의 순서도가 동일하다.

3.2.1.2.2 예/아니오 의문문

상대방에게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으로 의문사 의문문과 달리 동사가 문장 맨 처음에 위치한다.

<표 4> 예/아니오 의문문 순서도

중앙부(Mittfält)		종결부(Slutfält)				
정동사 (FV)	주어 (S)	문장 부사어 (SA)	부정동사 (IV)	불변화사 (Part/Prep/ Refl)	목적어/ 보어 (O/P)	기타 부사어 (ÖA)
(13) Lagar	du	aldrig			mat	hemma?
	당신 남편은 집에서 음식을 전혀 안 하나요?					
(14) Skulle	du		vilja hjälpa		mig	med läxorna?
	숙제 좀 도와주실래요?					

예/아니오 의문문의 순서도에는 도입부가 없다. 예시문 (13)은 동사 현재형 *lagar*, 예시문 (14)는 서법동사 *ska*의 과거형인 *skulle*로 문장이 시작된다. 동사 다음에는 주어, 문장부사어 순으로 평서문의 순서도와 같다.

3.2.1.3 명령문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거나 부탁하는 문장으로 주로 느낌표로 끝난다. 예/아니오 의문문처럼 동사가 문장 맨 처음에 오며 일반적으로 주어는 생략된다.⁹⁾

9) 명령문의 주어는 2인칭 단수나 복수로 동사 뒤에 위치하나 일반적으로 생략된다.

<표 5> 명령문 순서도

중앙부(Mittfält)			종결부(Stutfält)			
정동사 (FV)	(주어) (S)	문장 부사어 (SA)	부정동사 (IV)	불변화사 (Part/Prep/ Refl)	목적어/ 보어 (O/P)	기타 부사어 (ÖA)
(15) Glöm		inte	låsa		dörren!	
		문 잠그는 것을 잊지 마라!				
(16) Sitt	du				stilla!	
		가만히 앉아 있어!				

명령문의 순서도는 동사, (주어), 문장부사어 순으로 예/아니오 의문문의 순서도와 같다. 순서도의 예시문 (15)는 동사어간 *glöm*으로, 예시문 (16)에서는 *sitt*로 문장이 바로 시작된다. 예시문 (15)는 주어가 없는 반면 예시문 (16)의 경우 주어 *du*가 동사 뒤에 위치하고 있다.

3.2.2 문장유형에 따른 어순

문장유형에 따른 순서도를 관찰해보면 공통적으로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주절)어순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들의 위치가 문장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주어와 동사의 순서에 따라 문장유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평서문은 다양한 문장성분으로 문장이 시작될 수 있지만 주어가 아닌 다른 문장성분으로 문장이 시작될 경우 동사 뒤에 주어가 오게 되어, '동사(V)+주어(S)' 순의 도치문이 된다. 의문문과 명령문의 경우 주어는 항상 동사 뒤에 위치한다.

동사의 경우 평서문과 의문사 의문문에서는 문장 두 번째 자리에 오는 반면 예/아니오 의문문과 명령문에서는 동사가 문장 맨 처음에 온다.¹⁰⁾ 동사의 문장 내 순서로 스웨덴어의 문장유형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사의 위치가 문장유형에 가장 중요하다.

10) 동사가 문장 맨 처음에 오는 규칙을 V1-regel, 동사가 문장 두 번째 자리에 오는 규칙을 V2-regel이라고 한다.

3.3 주절과 종속절

스웨덴어의 어순은 문장 내 종속관계, 즉 주절과 종속절을 구별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다. 주절의 어순과 마찬가지로 종속절의 기본적인 어순도 순서도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3.3.1 종속절순서도

종속절은 원칙적으로 att, om, när 와 같은 종속접속사로 시작된다. 문장은 주절로 시작되어 종속절로 종결될 수 있지만, 종속절로 문장이 시작해서 주절로 종결될 수도 있다.

<표 6> 종속절순서도

도입부(Inledarfält)	중앙부(Mittfält)		종결부(Slutfält)				
종속접속사 ¹¹⁾ (Bisatsinledare)	주어 (S)	문장- 부사어 (SA)	정동사 (FV)	부정동사 (IV)	불변화사 (Part/Prep/ Refl)	목적어/보어 (O/P)	기타 부사어 (ÖA)
(17) Om	du	inte	orkar	jobba		mera	i dag
	오늘 더 이상 일을 할 힘이 없다면						
(18) När	de		är			ensamma	hemma
	그들이 집에 홀로 있을 때						
(19) Att	han		(har)	gett		dig en ring	
	그가 너에게 반지를 주었다는 것						

종속절순서도는 종속접속사로 이루어지는 도입부, 중앙부와 종결부로 구성된다. 중앙부는 주어, 문장부사어, 정동사로 구성되며 종결부는 부정동사, 불변화사, 목적어/보어, 기타 부사어로 구성된다. 주절순서도와 마찬가지로 종속절 순서도도 문장에 존재하는 문장성분만 순서도에 채워지며 순서도의 나머지 부분은 빈 칸으로 남는다. 주절순서도와 종속절순서도의 중요한 차이는 순서도의 중앙부의 어순에 있다: '정동사-(주어)-문장부사어' 순서로 된

11) 종속접속사는 종속절을 주절에 연결해 주는 접속사로 예로는 att, om, innan, eftersom, som 이 있다. 종속접속사는 항상 종속절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종속접속사의 유무에 따라 주절/종속절을 구별하기도 한다.

주절순서도의 중앙부와 달리 종속절순서도의 중앙부는 '주어-문장부사어-정동사' 순서로 되어 있다. 종결부는 주절과 종속절에 관계없이 어순이 동일하다.

종속절순서도를 보면, 예시문 모두 종속접속사로 시작되는 종속절이다: 예시문 (17)은 조건부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 *om*으로, 예시문 (18)은 시간부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 *när*로, 예시문 (19)는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 *att*로 시작된다. 종속접속사 다음의 어순은 모두 주어(*du, de, han*)+문장부사어+동사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¹²⁾ 예시문 (19)에서는 동사 *har*가 생략된 것을 볼 수 있다.¹³⁾ 예시문에서 보듯이, 종속절은 유형에 관계없이 어순이 항상 동일하다. 종속절 어순의 중요한 특징은 종속접속사를 제외하고 항상 주어가 첫 번째 자리에 오며 문장부사어는 주어 뒤나 동사 앞에 온다는 것이다.¹⁴⁾

3.3.2 주절과 종속절의 차이

주절순서도와 종속절순서도가 보여주는 것처럼, 스웨덴어는 주절의 어순과 종속절의 어순이 다르다. 주절과 종속절을 구별하는 중요한 어순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주절은 어떠한 문장성분으로든 시작될 수 있으나 종속절은 반드시 종

12) 종속접속사는 어순에서 제외된다.

13) 종속절의 동사가 완료동사의 형태인 경우 *har/hade*는 생략이 가능하다.

14) 종속접속사로 종속절이 시작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조건부사절로 문장이 시작될 경우 종속접속사 *om*이나 *ifall*이 생략될 수 있다. 이 때 문장은 동사로 시작되어 주절의 어순을 취하게 된다.

{*Om/Ifall* *du* *inte* *förstår*} *fråga mig!* 모르면 나에게 물어봐!
 If S SA FV
 = {*Förstår* *du* *inte*} *fråga mig!*
 FV S SA

예시문의 첫 번째 문장은 조건(부사)종속절과 주절로 이루어진 명령문으로 종속접속사 *om/ifall*이 생략되면 동사(*förstår*)가 문두어에 오는 예/아니오 의문문의 형태를 띠게 된다.

속접속사로 시작된다.

- (2) 주어가 아닌 다른 문장성분으로 주절이 시작되면 주절은 동사(V)+주어(S) 순의 도치문(omvänd ordföljd)의 형태를 가지지만, 종속절은 항상 주어(S)+동사(V) 순의 정치문(rak ordföljd)의 형태를 지닌다.
- (3) 주절에서는 inte를 비롯한 문장부사어가 동사 뒤에 위치하지만 종속절에서는 동사 앞에 위치한다.
- (4) 주절에는 동사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반면 종속절에서는 동사가 완료동사의 형태인 경우 생략이 가능하다.

4. 자리지킴이 원칙

3장에서 자세하게 논의한 바와 같이, 스웨덴어 어순은 문장성분과 문장유형은 물론 주절/종속절을 구별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정되어 있다. 스웨덴어의 고정된 어순은 소위 자리지킴이 원칙(platshållartvänet)과 깊은 관련이 있다(Hultman, 2003; Viberg, Ballardini & Stjärnlöf, 1984). 특별한 의미가 없는 문장성분이라도 문장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순전히 문장의 성립을 위해 문장에서 자리를 지키는 기능을 하는 주요 문장성분으로는 주어와 동사가 있다.

4.1 필수성분 주어

스웨덴어의 모든 문장에는 반드시 주어가 있어야 한다(Hammarberg & Viberg, 1979; Hultman, 2003). 이는 주어와 동사의 순서가 문장유형이나 문장내 종속관계를 표시하기 때문이다. 필수 문장성분(finittväng)이며 생략될 수 없다. 예를 들면 문장에 주어가 없을 경우 평서문과 예/아니오 의문문의 구별이 어려워지게 된다. 앞서서도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평서문에서 동사는 항상 문장 두 번째 자리에 오지만 예/아니오 의문문에서는 문장 맨 처음에 온다. 그러므로 주어가 존재하지 않는 예시문 (20)의 세 번째 문장은 평서문

인지 예/아니오 의문문인지 구별이 불가능해진다.

- (20) Han kommer hem snart. 그는 곧 집에 온다. (평서문)
 S V RA TA
Kommer han hem snart? 그가 곧 집에 와요? (예/아니오 의문문)
 V S
 *Kommer hem snart¹⁵⁾ (평서문? 예/아니오 의문문?)
 V

문장에 주어¹⁵⁾가 없을 경우 또한 주절과 종속절의 구별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는 주절의 경우 주어¹⁵⁾가 동사 뒤에 위치하지만 종속절에선 동사 앞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어¹⁵⁾가 없는 예시문 (21)의 세 번째 문장에서는 주절과 종속절의 구별이 불가능하게 된다.

- (21) När kom han hem? 그가 집에 언제 와요?(의문사 의문문) 주절
 언제 V S RA
 {När han kom hem} vet jag inte. 그가 언제 집에 오는 지 나는 모른다. (종속절)
 언제 S V RA V S SA
 *När somnade (주절? 종속절?)
 V

특별한 의미 없이 문장의 성립을 위해 순전히 자리만 채우는 기능을 하는 주어¹⁵⁾로는 형식상의 주어, 비인칭 주어 등이 있다.

4.1.1 형식상의 주어 det

형식상의 주어(formella subjekt) det 는 한국어를 비롯한 많은 언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으로 의미 없이 순전히 문장 내에서 주어 자리를 지키는 기능만을 하는 주어¹⁵⁾로 일반적으로 가주어라고 불린다.¹⁶⁾ 가주어 det 는 새

15) 비문법적인 문장 앞에 통상적으로 *를 표시한다.

16) 가주어가 포함된 문장에서는 새로운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어구, 즉 부정형 어구가 문장의 진정한 주어¹⁵⁾로 보통 진주어라고 한다. 특별한 의미가 없는 가주어 대신 진주어가 문장의 주어¹⁵⁾로 사용될 수 있다. 가주어가 주어¹⁵⁾로 사용된 문장과 의미는 거의 동일하다.

로운 사람이나 사물을 소개하는 소개구문에 흔히 쓰인다.

- (22) Det ligger en matta i hallen. 현관에 카페트가 하나 있다.
 가주어 V

예시문 (22)의 주어 det는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생략하게 되면 주어 없는 문장 Ligger en matta i hallen 이 되어 주어진 문장이 평서문인지 예/아니오 의문문인지 구별이 불가능하게 된다. 가주어 det는 문장의 성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주어이다. 가주어가 없는 한국어 문장에서는 '카페트'가 주어가 된다.

4.1.2 주어표시어 som

의문사로 시작하는 간접의문(종속)절인 경우, 때에 따라 주어표시어 (subjektmarkör) som 을 주어 자리에 위치시키는데 이는 문장성분과 주절과 종속절을 구별하기 위해서이다(Bolander, 2012). 다시 말하면, 의문사가 종속 절의 주어로 사용될 경우 목적어어로 사용되는 경우와 구별하기 위하여 의문사 뒤에 주어표시어 som 이 첨가된다.

- (23) Jag vet inte {vem som träffar Martin i stan}.
 S V O
 나는 누가 Martin을 시내에서 만나는지 모른다.
- (24) Jag vet inte {vem Martin träffar i stan}.
 O S V
 나는 Martin이 누구를 시내에서 만나는지 모른다.

- (22) Det ligger en matta i hallen.
 가주어 진주어
 = En matta ligger i hallen.
 S V

가주어 det가 주어진 예시문 (22)의 첫 번째 문장이 진주어 en matta가 주어진 두 번째 문장보다 자연스러우며 일반적으로 더 많이 사용된다.

예시문 (23)을 보면 의문사 *vem*이 간접의문(종속)절에서 주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som*으로 표시해주고 있다. 예시문 (24)의 주어는 *Martin*이고 의문사 *vem*은 목적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주어표시어 *som*이 필요하지 않다.

4.1.3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det*

날씨를 나타내는 문장에서도 항상 주어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문장에서 사용되는 주어는 비인칭대명사 *det* 로 아무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다. 비인칭 주어가 없는 한국어 문장에서는 '비'와 '맑이' 주어로 사용되고 있다.

(25) *Det har regnat hela dagen.*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S V

(26) *Det är kallt ute.* 맑이 춥다.
 S V

4.1.4 부정대명사 *man*

부정대명사 *man*은 인칭대명사 주격으로 많이 사용되나 불특정한 일반적인 사람을 지칭하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 한국어로 해석을 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

(27) *I Korea äter man kimch nästan varje måltid.*
 V S

한국에서는 거의 식사마다 김치를 먹는다.

(28) *Man blir inte profet i sin egen hemstad.*
 S V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4.2 필수성분 동사

(서술)동사는 주어와 마찬가지로 문장유형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생략될 수 없다 (Hultman, 2003; Wijk-Andersson, 2008). 예를 들면 *vara* 동사가 없는 문장은 평서문과 예/아니오 의문문, 그리고 주절과 종속절의 구별이 불가능해지므로 *vara* 동사는 생략될 수 없다. 자리지킴이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동사로는 *vara* 외에도 *bli*가 있다.

- (29) $\frac{\text{Anton}}{S} \quad \frac{\text{\u00e4r}}{V} \quad \text{l\u00e4kare.} \quad \text{Anton은 의사다. (평서문)}$
 $\frac{\text{\u00c4r}}{V} \quad \frac{\text{Anton}}{S} \quad \text{l\u00e4kare?} \quad \text{Anton이 의사니? (예/아니오 의문문)}$
 $\frac{*Anton}{S} \quad \text{l\u00e4kare} \quad \text{(평서문? 예/아니오 의문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서문의 경우 동사는 항상 문장 두 번째 자리에 오나 예/아니오 의문문의 경우 문장 맨 처음에 온다. 그러므로 *vara* 동사가 존재하지 않는 예시문 (29)의 세 번째 문장은 평서문인지 예/아니오 의문문인지 구별이 불가능하므로 문법적인 문장이 아니다.

문장에 동사가 없게 되면 주절과 종속절의 구별도 불가능하다. 이는 주절의 경우 동사가 항상 문장 두 번째 자리에 위치하지만 종속절에선 주어 뒤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vara* 동사가 없는 예시문 (30)의 세 번째 문장에서는 주절과 종속절의 구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완벽한 문장이 될 수 없다.

- (30) $\text{D\u00e4r} \quad \frac{\text{\u00e4r}}{V} \quad \frac{\text{Per}}{S}. \quad \text{저기에 Per가 있다. (주절: 평서문)}$
 $\{\text{D\u00e4r} \quad \frac{\text{Per}}{S} \quad \frac{\text{\u00e4r}}{V}\} \text{ vill jag inte vara. Per가 있는 곳에 있고 싶지 않다. (종속절)}$
 $*\text{D\u00e4r} \quad \text{Per} \quad \text{(주절? 종속절?)}$

4.3 형식상의 목적어 det

목적어도 자리지킴이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동사 *få, göra, ordna, ta* 와 부사어로 된 어구가 있는 문장은 반드시 목적어를 수반하는데 이때 일반 목적어가 없을 경우 특별한 의미가 없는 형식상의 목적어(*formella objekt*) 또는 가목적어 *det*가 사용된다(Hultman, 2003). 한국어로는 해석되지 않는 목적어이지만 스웨덴어에서는 문장 성립에 필요한 목적어이다.

- (31) Vi hade det trevligt hos Ellen i fredags. 우리는 지난 금요일 Ellen집에서 즐겁게 보냈다.
가목적어
- (32) Ta det lugnt! 진정해!
가목적어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통사론에서 문장구성의 기본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는 스웨덴어 어순의 중요한 특징과 기능을 알아보았다. 어순의 기능에는 문장 내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어순이 사용되는 통사적 기능과 문장의 구 정보와 신정보를 표시하기 위하여 어순이 사용되는 담화적 기능이 있다. 스웨덴어 어순의 주요 기능은 통사적 기능으로 문장성분, 문장유형, 주절/종속절을 구별하는데 어순이 사용된다.

기본 어순이 주어(S)-(서술)동사(V)-목적어(O)인 스웨덴어는 어순으로 문장성분 주어와 목적어를 구별한다. 문장의 동사 앞에 위치한 어구는 주어가 되며 동사 뒤에 위치한 어구는 목적어가 된다. 어순은 또한 문장유형을 구별하는 기능도 하는데 이때 주어와 동사의 문장 내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 평서문과 의문사 의문문에서 동사는 항상 두 번째에 오지만, 명령문과 예/아니오 의문문에서 동사는 문장 맨 앞에 온다. 또한 평서문은 다양한 문장성분으로 문장이 시작될 수 있지만 주어는 아닌 다른 문장성분으로 문장이 시작될

경우 동사 뒤에 주어(Subject)가 오게 되어 동사(V)+주어(S) 순의 도치문이 된다. 그러나 의문문과 명령문의 경우 주어는 항상 동사 뒤에 위치한다. 스웨덴어 어순은 문장유형뿐만 아니라 문장의 종속관계, 주절/종속절을 구별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어(Subject)가 아닌 다른 문장성분으로 시작되는 주절은 동사(V)-주어(S) 순의 도치문이 되지만 종속절은 항상 주어(S)-동사(V) 순의 정치문의 형태를 지닌다. 또한 주절에서는 문장부사(Conjunction)가 동사 뒤에 위치하지만 종속절에서는 동사 앞에 위치한다.

스웨덴어 어순은 의미가 없는 문장성분이라도 반드시 문장에 존재해야만 하는 소위 자리지킴이 원칙과 깊은 관련이 있다. 스웨덴어의 모든 문장에는 반드시 주어(Subject)가 있어야 한다. 위에서 이미 설명된 바와 같이 주어(Subject)와 동사(Verb)의 순서가 문장유형이나 문장 내 종속관계를 표시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문장에 주어(Subject)가 없을 경우 평서문과 예/아니오 의문문의 구별이 어려워지게 된다. 문장에 주어(Subject)가 없을 경우 또한 주절과 종속절의 구별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는 (주어(Subject)가 아닌 다른 문장성분으로 시작되는) 주절의 경우 주어(Subject)가 동사(Verb) 뒤에 위치하지만 종속절에선 동사(Verb) 앞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특별한 의미 없이 문장의 성립을 위해 순전히 자리만 채우는 기능을 하는 주어(Subject)로는 형식상의 주어 *det*, 주어표시어 *som*, 비인칭 주어 *det* 등이 있다. (서술)동사(Verb)도 주어(Subject)와 마찬가지로 문장유형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생략될 수 없다. 자리지킴이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동사로는 *vara*로,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vara* 동사가 없는 문장은 평서문과 예/아니오 의문문, 그리고 주절과 종속절의 구별이 불가능해지므로 반드시 문장에 존재해야 된다.

스웨덴어는 어순이 문장성분이나 문장유형 등을 구별하는 중요한 통사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어순의 변동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주어(Subject)와 (서술)동사(Verb)가 필수문장성분으로 특별한 의미가 없더라도 반드시 문장에 있어야 하며 문장유형과 주절/종속절에 따라 문장성분이 맞게 배열되어야 한다. 자유로운 어순과 주어 없는 문장 등이 특징인 한국어가 모국어인 스웨덴어 학습자들에게 스웨덴어 어순은 커다란 학습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Park, 2010). 스웨덴어 어순 규칙과 기능에 대한 본 논문의 논의가 학습자들의 효과적인 스웨덴어 어순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 박현숙(2015). 초급 스웨덴어 문법.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_____(2016). 중급 스웨덴어 문법1.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변광수(1980). 스웨덴어의 구조적 특징. 한글, 170, 631-650.
_____(2002). 한국인의 스웨덴어 학습에 나타난 문법상의 오류. 스칸디나비아 연구, 3, 1-27.
_____(2007). 종합 스웨덴어: 문법, 강독, 작문. 문예림.
- Andersson, E. W. (2008). *Ny grammatik: det svenska språkets struktur*. Ny utgåva bearbetad av Lennart Larsson. Stockholm: Hallgren & Fallgren.
- Bolander, M. (2012). *Funktionell svensk grammatik* (3:e upplagan). Stockholm: Liber AB.
- Ekerot, L. J. (2011). *Ordföljd, tempus, bestämdhet. Föreläsningar om svenska som andraspråk* (2:a uppl). Malmö: Gleerups.
- Hammarberg, B., & Viberg, Å. (1979). *Platshållartvånget, ett syntaktiskt problem i svenskan för invandrare*. Stockholms universitet: Institutionen för lingvistik.
- Holmes, P., & Hinchliffe, I. (2008). *Swedish. an essential grammar* (2nd ed.). London & New York: Routledge.
- Hultman, T. G. (2003). *Svenska Akademiens språklära*. Svenska Akademien.
- Josefsson, G. (2009). *Svensk universitetsgrammatik för nybörjare*. Lund: Studentlitteratur.
- Park, H. S. (1994). En kontrastiv beskrivning av koreanskan i förhållande till svenskan. D-uppsats (Institutionen för nordiska språk). Uppsala universitet.
- Park, H. S. (2010). Några grammatiska svårigheter i svenskan för koreansktalande: Med fokus på syntax. *Scandinavian Studies*, 11, 1-15.
- Viberg, Å., Ballardini, K., & Stjärnlöf, S. (1984). *Swedish. essentials of*

grammar. A practical guide to the mastery of Swedish. New York:
McGraw-Hill.

<Abstract>

Swedish Word Order from a Syntactic Perspective*

Park, Hyeon-Sook**

The main function of the Swedish word order is to mark syntactic relations, e.g. sentence elements and sentence types. Variations in word order are therefore limited and relatively fixed compared to other languages.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Swedish word order which is often found to be one of the most difficulties among Swedish learners and the focus of the paper is the syntactic function of the word order.

Swedish basic word order is the subject(S)-verb(V)-object(O) and the order is used to distinguish sentence elements, particularly subjects and objects. The word order is also used to distinguish sentence types. In yes/no questions and commands, the verb comes first in the sentence, whereas in statements and Wh-questions, the verb comes second in the sentence. Swedish word order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in distinguishing between main clauses and subordinate clauses. When a sentence starts with a sentence element other than the subject, the main clause becomes an inverted sentence in the order of 'the verb(V)-the subject(S)', but the subordinate clause always takes the form in the normal order of the subject(S)-verb(V). Besides, sentence adverbials are placed after verbs in main clauses, but before verbs in subordinate clauses. Swedish word order is closely related to the so-called place-holder (or subject-verb) constraint which means that all clauses must contain a subject and a verb. In Swedish, it is not

* This work was support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Research Fund of 2019.

** Dept of Scandinavian Languag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ossible to leave out the subject and the verb because they are used to distinguish sentence elements and sentence types.

Key Words: Swedish word order, syntactic function, sentence elements, sentence types, main clauses/subordinate clauses, place-holder (subject-verb) constraint

성명: 박현숙(Park, Hyeon-Sook)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스칸디나비아어과
E-mail: hsp@hufs.ac.kr

논문 접수일: 2019.11.29.

논문심사 완료일: 2019.12.26.

수정원고 접수일: 2019.12.30.

게재 확정일: 2019.12.31.

